* 책임감 있는 남자들

저의 어린 시절 대부분의 시간은 책임감이 없었습니다. 나는 숙제를 미뤘고; 만약 숙제를 끝내지 못했다며, 나는 변명을 하곤 했습니다. 저는 취직도 안 했고, 한거라곤 집안 청소였습니다.

- 나는 아버지로 부터 이것을 배웠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아버지를 사랑하고, 그도 저를 사랑했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그는 또한 제게 클래식 음악을 좋아하도록 가르쳤고, 스포츠를 하도록 격려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책임감을 회피하는 그를 따라했습니다.
-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때 나는 더 나아지고 , 그분처럼 완벽해지고 싶었습니다. 나는 LifeTeen에서 젊은 남성 핵심 리더들과 웨스트민스터 수도원의 수도자들에게서 책임감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우리 교구의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진실을 말하는 것에 대해 완전히 솔직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제로서의 책임을 소홀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랑으로 그것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제가 6년 반 전에 이곳에 도착했을 때, 솔직히 말해서, 저는 우리 교구의 전부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남성들이 강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모든 영적 행사에는 다섯 명의 여성과 오직 한 명의 남성만이 왔습니다. 많은 이들이 소극적이고 수줍음이 많았으며 하느님께 대한 열정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으로 여러분을 다치게 하고 싶지는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완전하게 영적인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수동적이고, 자기 중심적이며, 자신감이 부족하고, 다소 패배한 것처럼 보이는 몇몇 젊은이들에게서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종교와 거의 모든 교구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더 헌신적이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남자들이 기도나 영적 사역을 이끌고, 고백성사를 보고, 매일 미사를 참여하여 젊은이들을 신앙적으로 멘토링하고 대담하게 기독교 생활을 하는 우리보다 더 강한 지역

교회가 있습니다. 제게만 그렇게 보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제들과 다른 교구를 방문하는 사람들이도 이것을 봅니다.

- 이 문제를 더 일찍 제기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은 이제 여러분이 준비가 되어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꺼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성장이 있었습니다.미사와 고백 성사에 대한 참여도 증가했고, 영적 부처에 대한 참여도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남성들은 저에게 어려운 진실을 듣는 것을 좋아한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많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부르시는 지 복음으로 가봅시다. 그분께서는 "나는 착한 목자다. 착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다. 삯꾼은 목자가 아니고 양도 자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을 버리고 도망간다"(요한10:11-12). 예수님은 완벽한 인간이시고, 남성다움의 완벽함이시며, 남성다움의 표시 중 하나는 남자가 자신을 희생하여 다른 사람이 살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기독교인들은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해야합니다 (Cf. Jn 15:13). 하지만, 남자들은 평균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여성들보다 더 크고 강하기 때문에, 그들의 희생은 대게 보호의 형태입니다. 남자는 자신의 가족, 동생들, 그리고 사람들의 무리를 물리적으로 보호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그리고 만약 여성이 무력하고 구조되어야 한다고 오해하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좋아하는 영화인 에일리언, 헝거게임, 조용한 장소를 관람하십시오. 거기에서, 여자는 분명히 영웅이지만 남자들이 모두 책임을 가지는 걸 볼 수 있는 영화들 입니다.)

- 예수님께서는 양치기와 삯꾼을 구별하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하여 두 가지 선택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다른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죽는 것과 도망가는 것. 남성들에게 있어서 이 선택은 보호자가 되는 것과 포식자가 되는 것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주거나 빼앗기 위해 힘을 쓰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세 번째 방법은, 남자가 돕거나 해치지 않지만, 포기하는 겁쟁이가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희생하는 선택은 주로 영적인 것입니다. 남자들은 대개 가족의 육체적, 물질적 행복을 제공하지만, 예수님의 예는 그 남자가 주로 가족의 정신적, 도덕적 행복을 제공해야만 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가장 활기찬 교구에는, 남자들이 그들의 일상에서 열심히 일하고나서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 교구로 옵니다.

- 자신을 희생하려는 이러한 선택 역시 남성들의 지배적인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더 책임감이 있습니다. 부모가 관계를 떠날 때, 이것은 대개는 아버지인 반면, 여자는 아이들을 돌봅니다. 그것이 또한 우리가 젊은 남자들만큼 길을 잃은 젊은 은 여성들을 보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하루 종일 비디오 게임을 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여성들이 모성애에 대한 선천적인 감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매달 그들의 몸은 그들이 아이에게 생명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남자들은 이런 생물학적 기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자 아이들은 전통적으로 남자가 되기 위해 남자가 되는 통과의식을 가졌습니다.
- 우리의 문화에는 젊은 남성들을 축하하는 성숙함의 단계들이 있습니다:봉사, 운전 면허 취득, 일자리 갖기, 동생들 도와주기, 여자 친구에게 데이트 신청, 차 구매, 자취. 우리는 남을 돕거나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는 삯꾼이어서 그들에게 관심이 없기 때문이다"(요한10:13)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을 때, 우리는 그들을 책임집니다.

결혼 생활에서, 아버지들은 그들의 와이프가 참는 만큼 희생을 가지려고 해야합니다.

- 여성들이 임신했을 때, 그들은 종종 노동의 고통으로 이어지는 고통의 기간을 견뎌야 합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더 많은 일, 더 많은 집안일, 항상 아내를 돕기 위해 부모로서의 책임을 나누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해야합니다. 그렇게 하는 곳에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됩니다.
-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착한 목자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이는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다"(요한 10:14-15).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분의 양이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는 사물처럼이 아니라, 서로 속해있는 친구와 가족으로서, 우리를 소유하십니다. 교황 베네딕트 16세는 자녀와

부모는 "서로가 상호 책임에 있다"(*Jesus of Nazareth*, Vol. 1, 281)고 말합니다: 부모는 자식을 책임지고 자녀는 부모를 책임지며 성장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분께서 아버지를 돌보는 방식이 우리를 돌보는 방식이라고 말씀하십니다(요한17); 그래서 그분께서는 우리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는 내가 목숨을 내놓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신다. 그렇게 하여 나는 목숨을 다시 얻는다"(요한10:17).

- 우리가 가족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생각할수록, 우리는 그들을 위해 더 많은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기꺼이 이루어 질 것입니다. 우리 중 누구도 강요 당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책임감을 선택하는 것의 묘미입니다- 우리가 자유롭게 그것을 선택한다면, 그것은 사랑의 표시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도 나에게서 목숨을 빼앗지 못한다. 내가 스스로 그것을 내놓는 것이다. 나는 목숨을 내놓을 권한도 있고 그것을 다시 얻을 권한도 있다. 이것이 내가 내 아버지에게서 받은 내 명령이다(요한 10:18).

다음주에, 저는 일주일간 쉬러 갑니다. 이번이 제가 여러분을 두 가지 행사에 초대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먼저,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을 생각 해 보십시오. 그들을 책임지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가능하다면 이번 주 수요일과 목요일에 그들을 알파로 초대하십시오. 그들이 예수님을 알고 사랑하도록 돕는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되새겨야 할 질문입니다: "예수님, 제가 제삶에서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더 책임지기를 바라시는 부분이 어디입니까?

둘째, 우리는 5월 8일 '요셉 성인을 통한 예수님께 봉헌'(the consecration to Jesus through St. Joseph)을 시작합니다.저는 이것이 우리 성당의 판도를 바꿀 것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6주 동안 성가정의 사랑에 대해 되새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분들을 예표로, 그분들과 대화하고, 도움을 요청해서, 우리 가족이 더 행복해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책을 사서 교구 식구들과 참여하여 함께 성장하기를 무릎꿇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이는 켄드릭 카스틸로입니다(https://media1.s-nbcnews.com/j/newscms/2019_19/2850106/190508-kendrick-castillo-cs-738a_858d92

916d58680e9fce41b0659dfa8e.social_share_1024x768_scale.jpg). 그가 18세였던 2019년 콜로라도에서 그는 교실에서 총기 난사범에게 돌격하여 그를 벽에 고정 시켜 28명의 학생을 모두 구했지만, 총기 난사범은 한 발의 총알로 켄드릭을 죽였습니다.

- 켄드릭의 아버지인 존이 쓴 글의 일부를 공유하겠습니다: "나는 켄드릭이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와 그분의 교회에 그를 소개했을 때 우리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기억합니다. 나는 켄드릭을 너무 사랑했습니다… 나는 그와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우리는 캠핑.. 낚시.. 사슴과 엘크 사냥..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미사를 갔습니다. 나는 나의 아버지와 함께 했왔던 삶을 켄드릭과 함께 다시 살아가고 있었는데, 이것은 인생에서 강한 아버지상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의 아름다움이었습니다" (Tyler Rowley, *Because of Our Fathers*, 33).
- "켄드릭은 복사였고, 사제들이 장례식 하는 것을 도왔습니다. 그는 사람들을 돕는 것에 큰 기쁨을 느꼈습니다… 소풍. 휴일 모임..켄드릭은 이것들을 다 도와줬습니다. 남자들은 그를 사랑했습니다. 켄드릭은 종종 참전 용사들이 전쟁 이야기 하는 것을 듣곤 했습니다. 켄드릭은 그들의 강한 믿음과 함께 애국심과 우리나라에 대한 봉사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 "아내가 직장에 전화를 걸어 내가 바쁜지를 묻고, 나에게 종종 해피밀을 들고 가서 켄드릭과 함께 점심시간을 보내야한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저는 항상 그녀의 제안을 받아들여 학교에 불쑥 나타나곤 했습니다. 그런 일들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과 축복에 감사하는 시간을 더 자주 가져야 합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 "이것은 부성애에 대한 이야기지만, 나는 여러분에게 제 아내, 마리아에 대해 말해야 하겠습니다. 켄드릭에게 놀라운 심성을 준 것은 바로 아내입니다. 그가 아기였을 때, 엄마가 하는 모든 일들을 했습니다.. 좋은 옷을 입히고, 말을 가르치고, 책을 읽어주고, '베지 테일즈'와 같은 비디오를 틀어주었습니다… 그녀는 또한 켄드릭에게 카톨릭 신앙에 대해 가르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 "켄드릭이 죽은 후 우리의 삶은 크게 변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제가 가장 힘들었던 부분은 아내의 고통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우리가

켄드릭을 다시 만나는 날까지, 내가 우리 둘의 삶을 잘 끌고 갈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강해지길 기도 할 뿐입니다. 제가 종종 공유했던 켄드릭과의 특별한 유대감은 두 명의 괴한과 그들의 아버지를 생각나게 합니다. 총기 난사범 A는 그의 아버지가 곁에 있을 때, 어머니를 때리는 장면을 정기적으로 목격했습니다… 그 난사 사건이 있기 불과 11일 전, 난사범 A는 트위터에 아버지가 보고 싶다고 올렸습니다. 사실, 난사범 A는 고등학교때, 성 전환을 한 생물학적 여성이었습니다. 난사범 B에 관해 말하자면.. 동급생들을 살해하기 위해 집을 나서기 전, 'F--- Society…'를 스프레이 페인트하고 난 후, 그의 어머니 차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렀습니다."

- "저는 켄드릭이 한 일에 대해 알게 됐을 때,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가 살아온 삶 은 그 순간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는 그와 내가 함께 쌓아 올린 모든 선한 것들, 신실한 카톨릭 남성들로 부터 가르침을 받은 모든 것들, 하느님을 사랑하는 긍정적인 아버지상들을 흡수했습니다. 1분 1초 만에 켄드릭은 친구들을 보호하고 살리기 위해 그의 인생에서 배운 모든 것들을 불러모았습니다 . 켄드릭은 그의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교회에서 그에게 가르친 것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리고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 찬미 예수님

4월24/25일 저스틴 신부님의 강론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성령 안에서 은총이 충만한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성소 주일로서 우리의 좋은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라, 삶을 주님께 봉헌하고 우리의 목자로 살고 있는 모든 사제들을 위해 '사제들을 위한 기도'를 다함께 바쳐 주시길 바랍니다.

*사제들을 위한 기도

영원한 사제이신 예수님,
주님을 본받으려는 사제들을 지켜주시어
어느 누구도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소서.
주님의 영광스러운 사제직에 올라
날마다 주님의 성체와 성혈을 이루는 사제들을
언제나 깨끗하고 거룩하게 지켜주소서.
주님의 뜨거운 사랑으로
사제들을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지켜주소서.
사제들이 하는 모든 일에 강복하시어
은총의 풍부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저희로 말미암아
세상에서는 그들이 더없는 기쁨과 위안을 얻고
천국에서는 찬란히 빛나는
영광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Father Justin Huang
Saturday-Sunday, April 24-25, 2021
4:30 p.m., 10 a.m.
St. Anthony of Padua's
Eucharistic Prayer: 3; Easter, B, 4th Sunday

Father Justin Huang
Saturday-Sunday, April 24-25, 2021
4:30 p.m., 10 a.m.
St. Anthony of Padua's
Eucharistic Prayer: 3; Easter, B, 4th Sunday